

02

FTA 최근 동향



02. FTA 최근 동향

1. 관세청 주요 이슈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허가취소 위기 구출 (2013. 08. 26)

관세청(청장 백운찬)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보세지역 규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현지 한국기업의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26일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제도에 대한 재무부령” 개정을 이끌어 내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보세지역 내 한국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내수판매를 25%로 제한하는 내수 판매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자국 규정으로 인해, 25%를 초과하여 생산물품을 내수 판매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14년 1월부터 보세지역 허가취소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현지 관세관을 통해 인도네시아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였다. 또한, 협조서한을 발송하는 등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제도 개정을 이끌어냈다.

FTA 원산지 검증사례 설명회 개최 (2013. 09. 03)

관세청(청장 백운찬)에서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미국, EU 등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원산지검증 사례 설명회를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원산지 검증사례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원산지관리 및 검증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수출기업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검증시 실제로 활용하는 질문 내용, 답변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수출물품임에도 인증수출자 오류, 원산지신고서 발급방법 미준수, 원산지 입증자료 관리 부실 등으로 적발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원산지검증 설명회는 서울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고, 인천에서도 10월 22일 설명회가 열렸다. 이외에 광주에서 11월 5일 개최, 대구(11월 8일), 부산(11월 13일), 울산(11월 19일) 설명회가 있었다. 또한 천안(11월 25일) 등 전국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²⁾

우수 고졸인력 대상 취업박람회 “FTA관” 마련 (2013. 09. 26)

관세청에서는 9월 26일 코엑스에서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에 “FTA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졸 구직자들이 FTA 실무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였다. 특히 취업박람회에서는 FTA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특성화 고교생을 비롯하여 우수 고졸인력이 참가하였다.

FTA관에는 FTA 무역과 관련하여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20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하여 고졸 구직자에 대한 채용면접을 진행하였다.

2) 설명회 일정은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음

이번 행사에서, 관세청에서는 FTA 전문인력의 역할과 전망 등에 관한 소개와 1:1 맞춤형 진로상담 등의 FTA 전문인력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편,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체계화된 FTA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FTA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서류 간소화·자동 발급제 시행 위해 FTA 관세특혜 고시개정 (2013. 10. 08)

관세청에서는 수출입기업이 FTA를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수입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 및 자동 발급제 시행, 협정관세적용신청 간소화, 필요서식 제정 등이다.

우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최근 1년 이내 동종동질물품을 동일한 국가로 수출하거나 동일재료·동일공정 물품의 경우에는 필수서류의 추가 입증서류제출은 면제될 것이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관의 심사없이 신속하게 자동발급하여 기업의 편의를 제고할 것이다. 특히,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금번 FTA 관세특혜 고시개정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기존보다 간편해져 우리상품의 FTA 특혜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애로 해결사례' 제작 (2013. 10. 10)

관세청에서는 FTA 해외 통관애로의 해결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주안점을 두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FTA 활용애로 해결사례'를 만화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FTA의 여왕'이라는 부제로 FTA 통관애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한·아세안 FTA 활용애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더불어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e-C/O)의 불인정과 협정 국가간 상이한 품목분류에 따른 특혜 배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과 FTA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익한 팁도 함께 담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수출입기업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관세청 FTA포털시스템에 E-Book으로도 등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민원실 등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도 비치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FTA 수출업무와 세관업무 고객지원센터 통해 해결 (2013. 10. 13)

관세청에서는 고객지원센터(1577-8577)를 통해 올해 1월~9월까지 관세 업무를 총 114,619건, 일평균 615건을 상담해 주었다고 밝혔다. 주요 문의 사항은 품목분류(23%), FTA 관련사항(18%), 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물품(16%), 수출입통관(17%)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협정별 상담실적은 한·EU FTA 협정이 38%, 한·미 FTA 협정이 29%, 한·아세안 FTA 협정이 19%를 차지하였다. 주요 상담 내용은 한·EU FTA는 운송방법, 한·미 FTA는 원산지 증명, 한·아세안 FTA는 적용 관세율 문의 등 협정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품목별 상담실적은 한·EU FTA의 경우는 의류, 화장품, 식품류에 대해, 한·미 FTA는 정밀기기, 오렌지, 건포도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외에 2013년 5월 체결된 한·터키 FTA는 과실, 견과류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원산지 사전검증 지원센터 신설 (2013. 10. 24)

관세청(백운찬 청장)에서는 FTA 활용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 완화를 위해 「원산지 사전검증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지원 센터에서는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서 원산지 적정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컨설팅 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특히, 원산지 사전검증 지원센터는 원산지 사전검증과 사후검증 상담을 포괄하는 원산지검증 Total 지원체제이다. 또한, 관세청 본청의 사전검증 지원본부를 필두로 각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에 6개 사전검증 지원팀(14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원센터에서는 원산지 확인자료 제출이 가능한 FTA 활용(예정)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대상 선정 이전에 원산지 사전검증을 지원해준다. 수출업체에서 원산지 사전검증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원산지 사전검증 신청서를 해당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³⁾

2013년 국제원산지컨퍼런스 개최 (2013. 11. 05 ~ 06)

관세청에서는 각국의 생생한 FTA 이행경험을 공유하고 상이한 FTA 통관절차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 11월 5일(그랜드 힐튼 서울호텔)과 6일(서울세관) 양일간 2013년 국제원산지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관세기구, 주요 교역상대국, 정부부처 등 700여명의 원산지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석하였다.

3) 관세청에서는 연말까지 원산지 사전검증을 사범 운영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14년부터 정식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1일차에는 원산지제도 국제동향 및 FTA 활용 성공사례, 원산지 검증제도와 발전방안, 2일차에는 국가별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와 원산지 증명제도 및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2013년 국제원산지컨퍼런스에서는 외국 관세청장과 현지진출기업 CEO 간담회, 관세청장 회의 등도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II. 우리나라 FTA 동향

한·터키 제4차 협상 개최 (2013. 08. 21 ~ 08. 22)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제4차 협상이 지난 8월 21일에서 22일 이틀간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서비스투자과장(김명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터키측은 경제부 EU국장(아피치)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서비스·투자협정 문안의 기본 구조에 합의하고,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차기 회의부터 서비스 시장과 투자 분야 개방을 위한 양허안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제5차 협상은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터키 FTA는 터키로서는 최초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체결하게 되는 것으로서, 서비스·투자협정 체결시 한·터키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 FTA 제1단계 협상 마무리, 민간산업 보호기틀 마련 (2013. 09. 03 ~ 09. 05)

한국과 중국은 9월 3일에서 5일 중국 웨이팡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서비스 및 투자·규범·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우선, 양국은 상품분야에서 상품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⁴⁾으로 분류하고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한해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이 두 품목군에서는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를 관세철폐 하는 것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편, 이번 1단계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보호범위를 정하였고,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양국은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기로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앞으로 양측은 이번에 결정한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전 분야(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의 협정문 및 시장 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4) 초민감품목은 양허 제외품목으로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한·베트남 FTA 2014년까지 체결 위해 노력 (2013. 09. 13)

우리나라는 대통령 베트남 순방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은 정상성명을 통해 2020년까지 교역 700억불이라는 교역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4년까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2009년 설정하였던 2015년 200억불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새로운 무역 목표로 '2020년까지 7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자유화 수준이 낮아 일·베트남 FTA(2009년 10월 발효)를 체결한 일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한·베트남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로 타결될 경우, 우리 수출주력품목의 베트남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신무역규범인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노동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논의를 위한 이행위원회 개최 (2013. 09. 15)

우리나라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상품협정 추가자유화 논의를 위하여 한·아세안 FTA 특별 이행위원회 회의가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상품협정상 추가자유화 논의 관련 규정(제15.2조)과 양측이 합의한 추가자유화 작업계획에 따른 것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양허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수출업자들의 편의를 증진하여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성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 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였고, 아세안 대표단은 아세안 사무국과 10개 아세안 회원국가에서 약 40여명이 참여하였다.

한·미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2013. 10. 07)

한·미 FTA 제2차 공동위원회가 지난 10월 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우리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측 마이클 프로만(Michael Froman) 무역대표(USTR)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편, 제1차 공동위원회는 지난 2012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2차 공동위원회에서는 한·미 FTA가 대체로 원만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국은 제1차 공동위원회 이후 개최된 한·미 FTA 위원회와 작업반을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양국은 세관협력방안, 한·중 FTA, TPP(환태평양파트너십) 등 양측이 최근 제3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정 논의 동향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인도네시아 CEPA 연내 타결 추진 (2013. 10. 14)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의 연내 타결 목표에 대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 정상이 합의하여 협상 진전에 정치적 추동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新통상 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및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상생형 FTA로 추진중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한·ASEAN FTA 상품협정(2007년 6월 발효)에서 우리 주요 수출품목이 민감·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ASEAN FTA(2007년 6월 발효) 및 일·인도네시아 EPA(2008년 7월 발효) 체결로 우리 주요 관심품목의 추가 자유화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에서 일본 대비 경쟁여건이 불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11년 2월 16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방한시 우리 대통령이 양자간 FTA 체결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간 한·인도네시아 CEPA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다.

한·EU FTA 제3차 무역위원회 개최 (2013. 10. 15)

제3차 한·EU 무역위원회가 10월 15일 개최되었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대표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U측에서는 Karel De Gucht(카렐 드 휴흐트)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공동의장으로 하여 양측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무역위원회에서는 한·EU FTA 이행 2주년을 맞아 양측간 무역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더불어 산하 위원회 및 작업반 활동,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인한 협정개정 작업 및 개성공단 제품의 한·EU 특혜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양국은 한국·EU FTA가 어려운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체로 원만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FTA가 실제로 투자 및 교역에 확대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이행관련 제반사항들을 더욱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미 FTA 및 해외 대외유통망 컨퍼런스 개최 (2013. 10. 17)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공동 주최로 『한·미 FTA 및 해외 대형유통망 컨퍼런스』가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참석 대상자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500여개업체와 미국과 중국 등 11개국 바이어 50여명이다.

이번 행사는 한·미 FTA 발효 1년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한·미 FTA 활용을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세계 대형소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열렸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미 FTA 컨퍼런스, 대형유통망 진출전략 컨퍼런스, 주요국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특히, 『한·미 FTA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1년반 동안 한·미 FTA 주요성과를 점검하였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미 FTA 원산지검증 대응, 활용사례, 활용지원정책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III. 해외 FTA 관련 동향

중미·멕시코 FTA 발효 (2013. 09. 01)

2001년 멕시코와 중미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은 멕시코와 다자간 FTA를 체결했으며, 코스타리카는 1995년, 니카라과는 1998년 각각 양자간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9월 1일 발효된 중미·멕시코 간 FTA로 양국 간 통상 및 투자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국 협정으로 중미와 멕시코 간 통행이 더 자유워질 것이며, 이는 물류, 유통시스템에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멕시코보다 저렴한 임금으로 중미는 미대륙의 거대 시장인 멕시코와 미국 진출을 위한 외국기업의 투자처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미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터키, 미국과 FTA 협상개시 (2013. 09. 18)

지난 5월 터키 총리(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의 미국 방문 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터키 기업의 애로사항이 이슈로 떠올라 양국 간 경제협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9월 18일 터키 경제부장관(자페르 차오라안), 미국 상무부장관(페니 프리츠키)과 미국 무역대표부(마이클 프로만)는 FTA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였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체결을 목표로 높은 수준의 위원회 구성, 공동연구 등 협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동의하였다. 터키의 對미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8억 달러), 철강(6억 달러), 기계류(5억 달러)등의 순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터키의 주요 수입국으로 2012년 미국에서의 수입액은 140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터키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철강분야가 27억 달러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항공기(17억 달러), 광물성 연료(15억 달러), 기계류(10억 달러) 순이다. 한편, 미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범대서양 무역투자자 동반협정(TTIP)에 따른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무역수지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TPP 회의 개최, 올해 내 큰 틀 합의 원칙 확인 (2013. 09. 24)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수석대표 회의가 21일 폐막하였다. 총 21개 분야 중 반 이상의 협상 타결이 10월 TPP 정상회의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수석대표 회의에서 협상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는 역시 관세 협상이다. 일본의 경우 8월 브루나이 TPP 협상회의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시작된 직후 관세철폐 대상 품목 리스트를 교환한 국가가 총 6개국에 불과하다.

이달 20일부터 미국이나 캐나다와의 관세 협상을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일본 내 조정을 끝낸 관세철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협의는 10월 APEC 회의 이후로 연기되었다.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APEC 회의에서 목표하는 '큰 틀 합의'는 각국 정상 성명의 형태로 "특정분야에서는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다. 이후 추가 협의가 필요한 협상 자연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타개책을 발표해 올해 안으로 타결의지를 재차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EU가입 추진중인 몰도바 와인 수입금지 (2013. 09. 27)

2013년 9월 10일, 러시아 소비자 권리 보호청은 몰도바산 와인에 대한 수입금지를 공식 발표하였다. 러시아는 몰도바산 와인과 브랜드의 최대 수입국으로 이번 조치로 몰도바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조치는 EU 가입을 추진 중인 몰도바 정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지난 9월 3일 러시아 부총리 로고진은 몰도바가 EU 가입을 추진할 경우 가스 공급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위치한 동유럽 약소국인 몰도바는 최근 EU 가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몰도바 정부의 입장에 러시아 정부는 몰도바산 와인 수입금지 외에 몰도바 내 친러시아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등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EU 경제권으로 편입을 추진하였다. 향후 1~2년 이내에 유라시아연합의 구축과 EU 경제권의 세력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스리랑카 FTA 11월 중 체결예정 (2013. 09. 30)

스리랑카 투자청은 중국·스리랑카 간 FTA 체결이 오는 11월 중 이루어질 것으로 발표하였다. 현재 투자청이 FTA 품목 리스트를 작성 중이며 스리랑카에서 11월 10일부터 개최되는 영연방정상회담 전까지 체결 준비를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스리랑카 FTA 체결은 비교적 협소한 스리랑카의 對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2013년 기준 스리랑카의 對중국 수입이 13억 7,600만 달러에 달하지만 수출은 5,200만 달러선에 불과하다.

2013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약 20% 상승한 5억 4,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투자 분야는 인프라 구축, 제조업, 서비스업 및 농업 순이다. 특히, 스리랑카 내에서의 중국산 수입품이 전체 수입시장의 16%를 차지하는 가운데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인하로 스리랑카 국내 소비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미 철강업체, 전기강판 덤핑 혐의로 6개 국가 제소 (2013. 09. 30)

미국 철강업체 AK사(AK Steel Corporation)는 “무방향성 전기강판⁵⁾” 제품에 대한 덤핑 혐의로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대만, 한국, 일본, 독일, 중국, 스웨덴)를 미국 상무부에 9월 30일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의 국제무역청(ITA)과 ITC는 6개 국가의 NOES에 대한 미국 국내 업체의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 시행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 미국 국내 철강업체의 피해가 있다는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이 있으면 ITC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AK사가 제소한 국가는 6개국이나 이 소송의 타깃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철강협회는 8월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이 전달보다 13.9% 증가했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며 수입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8월 철강제품 수입은 7월 대비 16.8%, 23%로 각각 증가해 수입이 감소한 중국(-38%), 대만(-18.2%)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제품을 표적으로 한 미국 철강업체의 우리제품에 대한 제소 및 반덤핑, 상계관세 판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5) 전기강판은 한 방향으로 뛰어난 자기 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철의 결정을 압연 방향으로 가지런히 한 방향성 전기강판(GOFS)과 모든 방향으로 양호한 자기특성을 갖기 위해 불규칙적인 결정 방향을 갖도록 한 무방향성 전기강판 두 종류로 나뉜다.

**캐나다·EU FTA 협상완료 가시화 단계
(2013. 10. 05)**

2008년 7월부터 캐나다·EU 양국은 FTA 협상 추진이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유럽 기업체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양측 대표는 2012년 말까지 협상이 완료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과 같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양측의 정상인 캐나다 총리실과 EU 집행위원장실에서 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하였다. 특히, 2013년 상반기에 접어들며 양측의 협상은 사실상 완료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며, 가장 큰 쟁점인 쇠고기, 의약품에 대한 지재권과 낙농제품에 대한 협상이 남은 상태이다.

한편, 양측 정상이 직접 협상을 주도한 이후 의견 차이가 있었던, 의약품 지재권, 정부조달 등은 상호협상이 크게 진전되었으며, 양측의 합의 내용은 아직 비공개 상태라고 한다.

**EU, 중국과 최초 투자보호협정 체결 추진 예정
(2013. 10. 10)**

EU는 10월 18일 중국과 투자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U는 협상에 앞서 중국이 EU 기업의 적절한 시장진입과 관련해 협상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EU 의회는 지난 10월 9일 결의를 통해 중국 관공서의 결정에서 명백한 자의성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EU 의회에서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몰수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번 EU의 투자보호협정 체결의 추진 배경은 중국과의 교역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투자보호협정은 현재 쌍방간 다수의 긴장이 감도는 교역관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투자보호협정을 통해 EU는 EU 기업의 적절한 중국 시장진입 가능성을 확대하고, 중국과의 교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